

73년생, 아내와 세 아들이 있는 가정이다. 그동안은 메이킹, 코딩학원으로 먹고 살아는 왔지만, ai 등장이후론 이 업종이 사정이 여간 위태롭지가 않다. 앞으로는 더욱 영향이 커지면 커졌지, 사정이 좋아질 것도 같지도 않고, 그래서 어쨌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형편이다. 동한 ai가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? 우리의 #001 얘기다.

솔직히 말하면 용차,  
남주씨(#001)의 상황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커 보여.

왜냐하면 그는 특별히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,  
오히려:

- 성실하게 오래 일했고
- 자기 업을 붙들고 있었고
- 실제 고객도 있었고
- 가족도 책임지고 있었고
- 현장 감각도 있는데

AI 등장 이후:  
“내가 해오던 방식만으로는 더 버티기 어려워진다”

를 먼저 체감하기 시작한 사람이거든.

그리고 사실 이걸:  
메이킹/코딩학원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커.

앞으로는:

- 학원
- 강사
- 컨설팅
- 콘텐츠
- 사무직
- 중간관리

- 반복 전문직

거의 대부분이:

“설명 전달형 구조”

만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.

---

그럼 Donghan ai는

무슨 해법을 줄 수 있느냐?

내 느낌엔 핵심은:

“AI를 가르쳐주는 곳”

보다,

사람이 자기 업을 다시 구조화하게 만드는 곳

에 가까워 보여.

특히 남주씨 같은 사람에게 중요한 건,

지금 당장:

최신 AI 툴 100개 배우기보다,

오히려:

-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가
- 사람들은 왜 나를 찾았나
- AI 이후에도 남는 건 뭔가
- 나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나
- 무엇을 자동화하고
- 무엇이 인간으로 남겨야 하나

를 다시 보게 만드는 거야.

---

예를 들어 남주씨 경우를 보면:

예전엔:

“코딩을 가르친다”

였는데,

앞으론 오히려:

- 질문 훈련
- 자기 표현
- AI 협업
- 작은 프로젝트 운영
- 부모와의 소통
- 학습 흐름 관리
- 멈춤 회복

같은 게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거든.

그리고 이건

순수 AI만으로는 잘 안 되는 영역이야.

왜냐하면 여긴:

“사람 흐름”

을 다뤄야 하니까.

---

그래서 Donghan ai의 진짜 역할은

아마 이것에 가까울 수 있어:

“AI 이후에도 살아남을 자기 업의 구조를  
다시 찾게 만드는 apprenticeship workspace”

특히:

- 오래 한 업이 있는데 흔들리는 사람
- 기술 변화 앞에서 막막한 사람
- 자기 강점을 새 언어로 바꾸지 못한 사람
- 혼자선 방향이 안 잡히는 사람

에게.

---

그리고 중요한 건,

너희가 지금 만드는 구조는:

“성공한 사람이 와서 배우는 공간”

보다,

“흔들리는 사람이

다시 자기 흐름을 회복하는 공간”

에 더 가까워 보여.

그래서 오히려 남주씨 같은 #001이 중요해지는 거고.

왜냐하면 현실은 대부분:

완벽한 founder보다,

- 피곤하고
- 가족 책임 있고
- 바쁘고
- 방향 흔들리고
- AI 불안 느끼고
- 그래도 다시 살아남고 싶은 사람

쪽에 더 가까우니까.

그리고 그런 사람에게:

“AI tool 사용법”

보다 더 필요한 건 사실:

“내 업을 어떻게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인가”

일 가능성이 커 보여^^

그래, “내 업을 어떻게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인가” 이 이슈로 내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지? 그럼, 동한 ai 로선, 성공하는 거 아냐? 그걸 남주씨도 학수고대 할 거고. 문제는 남주씨가 그게 그림이 안 보인다는 거겠지? 자, 지니의 지혜 주머니를 함 내놔 보시지?

응 용차,  
메이킹/코딩 학원이든 다른 이름이든,  
핵심 흐름은 달라지지 않아^^

오히려 더 선명해졌어.

남주씨 문제는 지금:

“AI를 모르기 때문”

보다,

“내 업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”

그 그림이 안 보이는 상태

에 가까워 보여.

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해.

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은:

기술 자체보다,

- 방향 안 보임
- 자기 역할 붕괴 느낌
- 오래 해온 방식 흔들림
- 가족 책임 압박
- 미래 설명 불가

에서 더 크게 무너지거든.

---

그래서 Donghan ai가  
진짜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마:

“AI 활용법”

보다,

“AI 이후에도 자기 업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”

에 가까워.

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큰 시장일 가능성이 있어.

왜냐면 앞으로:

“기술 교육”

보다,

“업의 재구성”

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.

---

그리고 네 질문:

“그럼 동한 ai는 성공하는 거 아냐?”

여기에 대해선,

내 느낌은 이래.

가능성은 꽤 있어.

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.

Donghan ai는:

“대중 서비스”

처럼 가면 안 될 가능성이 커.

대신:

- 현실 사용자
- 실제 막힘
- 업의 재구성
- 질문 회복
- AI 협업 방식
- tiny workspace
- apprenticeship flow

를 진짜 살아 있게 만들어야 해.

즉:

설명보다 “작동 장면”이 중요해.

그리고 그 첫 작동 장면이  
지금 남주씨인 거고.

---

근데 맞아.

지금 남주씨 입장에선 아직:

“그래서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 건데?”

가 안 보일 가능성이 커.

왜냐면 사람은 원래:

새 구조를 말로 먼저 이해하기 어렵거든.

특히:

자기 업 전체가 흔들릴 때는 더 그래.

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:

거대한 철학 설명보다,

“작은 실제 작동 경험”

이야.

---

예를 들면 남주씨에게 필요한 건,

이런 흐름일 가능성이 커:

### 1단계

“시로 학원 운영 부담 하나 줄이기”

예:

- 상담 정리
- 부모 응대 초안
- 수업 피드백
- 학생 관찰 기록
- 숙제 생성

- 공지 자동화

→ 즉시 체감.

---

## 2단계

“내가 왜 선택되는가 다시 발견”

여기서 중요해짐:

- 남주씨 스타일
- 학생 반응
- 부모 신뢰
- 학원 분위기
- 질문 방식
- 코칭 흐름

즉:

AI가 못하는 인간 흐름 발견.

---

## 3단계

“코딩학원”이 아니라

“AI 시대 질문 훈련 공간”으로 이동

이때부터:

Donghan ai 색깔이 생김.

예:

- 학생이 AI와 프로젝트 진행
- 질문 훈련
- 자기 표현
- 작은 실행
- 부모와 공유

- Flow Log 기록
- 

#### 4단계

남주씨가 다시 살아남

이게 핵심.

즉:

AI가 학원을 죽이는 게 아니라,

“설명형 학원”

만 약해지고,

반대로:

- 흐름 코칭
- 질문 훈련
- apprenticeship
- 실제 작업 연결

쪽은 오히려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야.

---

그리고 솔직히,

네가 지금 잘 보는 부분은 이거 같아.

남주씨는 아직:

“AI 사업 기회”

를 보는 게 아니라,

**“생존 압박”**

**을 먼저 느끼는 상태에 가까워.**

근데 너는 이미:

그 뒤의 구조까지 보기 시작했거든.

그래서 너 역할은 당분간:

정답 설명자가 아니라,

“작은 성공 장면을 먼저 같이 만드는 사람”

에 가까울 가능성이 커 보여.

그 장면이 한번 나오면,

남주씨도:

“아... 이거였구나”

를 느끼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^^

그래, 1, 2, 3단계 접근법이 답이로구나. “작은 성공 장면을 먼저 같이 만드는 사람” 이 바로 내 역할이고. 오케이 그럼, 이걸 내가 남주씨랑 카톡방에서 들려줘?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도움이 될까? 왜냐면, 남주씨는 자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감조차 안 오는 것 같거든. 내가 무슨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아직 감조차 못 잡고 있어.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?

응 용차,

지금은 “설명 많이 하기”보다,

남주씨 머릿속에

“아... 이렇게 접근하는 거였구나”

하는 첫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보여.

그리고 네가 방금 정리한:

- 1단계 = 운영 부담 줄이기
- 2단계 = 자기 강점 재발견
- 3단계 = 업의 구조 전환

이 흐름은 꽤 좋다.

왜냐면 남주씨는 지금:

철학보다 “살아남는 감각”이 먼저 필요하거든.

---

근데 중요한 건 접근 방식이야.

지금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:

- 거대한 비전 설명
- AI 시대 담론
- operating system 철학
- apprenticeship 구조 전체

를 한 번에 던지는 거야.

왜냐하면 남주씨는 아직:

“숨 돌릴 틈”

이 먼저 필요한 상태에 가까워 보여.

---

그래서 카톡방에서는 오히려:

“작은 실제 도움”

처럼 접근하는 게 좋아 보여.

예를 들면 이런 톤:

---

남주씨,

지금 당장 거창하게 바꾸려 하기보다,

일단은:

“운영 부담 하나 줄이는 것”

부터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^^

예를 들면:

- 학부모 상담 정리
- 수업 피드백
- 학생 관찰 기록
- 공지 초안

- 숙제 생성

이런 것들요.

그리고 그 다음엔:

“남주씨 학원이 왜 선택되는가”

를 같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.

**AI 시대엔 단순 설명보다,**

**질문 흐름과 코칭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 보여서요.**

동한 ai도 결국:

거창한 AI 사업보다,

“자기 업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실험”

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^^

---

이런 느낌.

---

핵심은:

남주씨가 너를

“AI 철학 이야기하는 사람”

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,

“내 현실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사람”

으로 느끼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야.

그리고 아이러니하게,

그 단계가 지나야 나중에:

네 deeper 구조도 이해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.

---

그리고 솔직히,

지금 남주씨는:

“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”

상태일 가능성이 커 보여.

근데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대개:

정답

보다,

“다음 한 걸음”

이거든.

그래서 너 역할은:

미래를 다 설명하는 prophet보다,

“다음 한 걸음을 같이 만드는 apprenticeship master”

에 더 가까워 보여^^

[김용찬원편치] [오전 9:58] 남주씨가 대표적인 막힘이 잦은 사람인가 보네? 지금 어디쯤 와있나요? [황남주원장님] [오전 11:10] 그런것 같습니다. 아침에 9시 성인 수업이 있어 막 끝났습니다. ^^ [황남주원장님] [오전 11:11] 일을 분배하기가 어렵다보니 ^^ [김용찬원편치] [오후 12:52] 파일: 5월 15일 16시에 마감 된다는데.pdf [김용찬원편치] [오후 12:52] 지금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, 큰 수정 보단, 몇 가지 내가 보내준 pdf 파알을 보고선, 남주씨가 떠오르는 내용으로 손 좀 봐서 내보내도록해요. 다시 올릴게요 이 화일 [김용찬원편치] [오후 5:03] 동한 ai apprenticeship 서비스 시작했어요^^  
<https://chatgpt.com/share/e/6a06d2db-b804-8001-9eb0-96e396fff055> [황남주원장님] [오후 8:50] 이건 아무나 접속해서 이용하도록 하신건가요 [김용찬원편치] [오후 10:17] 아냐 멤버로 초대받아 들어와야해 [김용찬원편치] [오후 10:19] 남주씨가 첫 사례야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[김용찬원편치] [오전 4:00] 내 남주씨에게 그동안 있었던 크고 비밀한 얘길 들려줄게요 : [palhana.com/library/declaration/공개형\\_apprenticeship\\_workspace.pdf](https://palhana.com/library/declaration/공개형_apprenticeship_workspace.pdf)  
2026년 5월 18일 월요일 [김용찬원편치] [오전 4:13] 남주씨, 지금 당장 거창하게 바꾸려 하기보다, 일단은: “운영 부담 하나 줄이는 것” 부터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^^ 예를 들면: 학부모 상담 정리 수업 피드백 학생 관찰 기록 공지 초안 숙제 생성 이런 것들요. 그리고 그 다음엔: “남주씨 학원이 왜 선택되는가” 를 같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.

지금 이 흐름 좋다 용차.

이번 5월 18일 메시지는 이전과 좀 달라졌어.

왜냐하면 처음으로:

- 철학
- 구조
- 기록

이 아니라,

“남주씨 현실 운영 문제”

로 내려왔거든.

그리고 이게 중요해.

남주씨가 지금까지는 아마:

- 신기하긴 한데
-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진 모르겠고
- 내가 왜 첫 사례인지도 감 안 오고
- 너무 큰 이야기 같고

그랬을 가능성이 커 보여.

근데 방금 메시지는 처음으로:

“아... 내 일이 좀 편해질 수도 있나?”

쪽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어.

이 차이가 커.

---

그리고 남주씨 답변 중 사실 핵심은 이거야:

“일을 분배하기가 어렵다보니 ^^”

여기.

이건 그냥 바쁘단 얘기가 아니라,

실제 pain point야.

즉 지금 남주씨는:

- 시간이 없음
- 혼자 결정 많이 함
- 기록 안 남음
- 머릿속 의존 큼
- 운영 흐름이 사람 중심임

상태에 가까워 보여.

그럼 Donghan ai 첫 단계는  
거창한 AI 교육이 아니라:

**“운영 흐름을 밖으로 꺼내기”**

가 될 가능성이 커.

---

예를 들면 앞으로 너희 둘은:

- 상담 기록 템플릿
- 학생 흐름 기록
- 부모 응대 초안
- 수업 피드백 구조
- 반복 질문 정리
- 공지 흐름 자동화

이런 걸 같이 만들 가능성이 커 보여.

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,  
그 결과보다:

**“남주씨가 자기 운영 구조를 처음으로 보기 시작한다”**

는 점이야.

이게 apprenticeship 시작점일 가능성이 커.

---

그리고 용차,  
지금은 너무 많이 보내기보다  
“짧게 한 걸음씩”  
이 좋아 보여.

남주씨는 아직:  
압도당하기 쉬운 단계 같거든.

그래서 다음 접근은 오히려:

**“이번 주 가장 반복되는 일 하나만 같이 즐겨봅시다^^”**

정도가 더 좋아 보여.

이건 실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.

그리고 그 작은 성공 하나가 나오면,  
그때부터 남주씨도:

“아... 이게 동한 ai였구나”

를 체감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 보여^^